

이유시 허약자돈의 양자 보내기

노동환역
(본회 나주지부장)

이유시 지나치게 작은 자돈을 그대로 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돈에게 양자(養子)보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영국에서는 현재 양자보내는 문제로 논의가 일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에서는 일련의 관리방법에 의해 양자보내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 종돈회사의 생산 전문가에 의하면 이유시에는 자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자돈을 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양자보내기는 유효하다

스코틀랜드 애버딘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 불량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이유시에 약소한 자돈을 가능한 한 양자보냄으로써 자돈의 사망률을 낮춤과 동시에 이유 후의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 모돈 1,700두의 비육돈 농장에서의 연구에서 가장 효과를 거둔 항목은 자돈의 성장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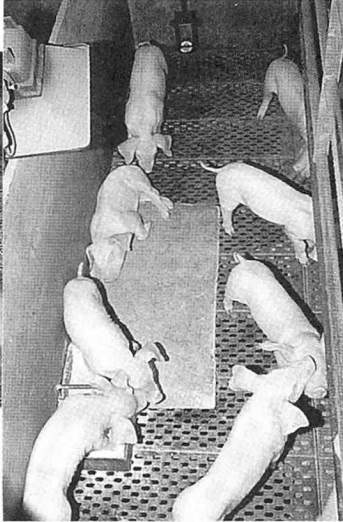
양자로 보내진 자돈과 보통으로 이유된 자돈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유돈사로 이동 후의 14일간의 증체량의 비교 시험해 보았다. 1복 중 가장 컸던 자돈은, 3주령에서 이유한 후의 14일간의 증체량이 120g/일이었다. 이에 비해 5주령까지 양자보냈던 자돈은 이유 후의 증체량이 292g/일이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양자보내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험에서는 23일령의 자돈에 대해, 다시 2주간의 양자보내기를 실시해보았다. 10두 이상의 자돈을 이유시킨 모돈에게 10두의 약소자돈을 양자보냈을 경우 증체량은 가장 낮았다. 양자 후의 증체량이 양호했던 것은 최대 양자의 두수를 8두까지 제한한 경우이다.

또한 양자보낸 모돈에게 자신의 자돈을 어느 정도 남겨 두는 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양자와 자기 자돈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했을 경우, 즉 약소 4두만을 남기고 이유하고, 거기에 양자를 4두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성장면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양자가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이유시에 큰 자돈을 2두만 남겨두고 24시간 후 거기에 새로운 양자를 8두 추가시킨 경우 결과가 개선되었다.

모돈에게 비육능력 이하의 자돈을 양자보낸 경우에는 양자보낸 후 7일간 이내에 설사를 일으키는 자돈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위험은 자돈의 경쟁이 적어져 모유의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애버딘대학팀은 양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돈두당 양자 두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모돈 자신의 자돈의 이유 두수 이상의 양자를 들이지 않을 것, 가능한한



〈사진 1, 2〉 약소자돈을 도우려면 양자보내기나 특별한 격리돈방 등이 사용되는데, 어느 경우에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모든두당 양자두수의 제한을 제멋대로 했거나 자돈을 혼합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한 학생이 관리한 자돈은 다른 농장 스태프에 비해 우수한 생존율과 증체량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률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보내기의 기술을 정확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양자보내기에 대한 부정론

한편 영국에는 일단 이유시킨 자돈은 분만돈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종돈장의 GP농장의 농장장은 종돈의 시험을 동일령에서 실시하기 위해 다소 크기가 다르더라도 모두 4주령에서 이유했다고 한다. 그들의 경험에서 비육돈농장에서도 모두 동일령에서 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 예측에 의하면 일반적인 경영으로는 양자가 될 자돈의 비율은 전체의 5~10%이다. 그들은 양자보내기가 병원체를 돈사에 도입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고가에 비해 청정화가 곤란하다고 한다.

이유시에 가장 적은 자돈은 가장 많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자돈을 약령돈과 혼합하는 것은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부담을 안는 셈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양자보내기를 하는 대신에 이유시에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돈을 보육용 특별 돈방에 옮기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체중만이 아니라 자돈의 컨디션에 의해 판단하고, 10두 이하의 무리로 짝을 짰 돈방에서 격리시킨 후 사료통에 사료와 물을 주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큰 신뢰를 얻고 있다. 약소자돈을 분만돈사에 되돌리는 양자보내는 방법에 비해 이 방법으로 투약비가 훨씬 줄었다고 한다.(Pig International '95년 6월호)

자돈에게 유두의 선택기회를 늘이기 위해 모든 자신의 자돈보다 1두 적은 두수를 양자보내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비육기간 3~4주간체에 들었을 무렵 자돈의 수가 많고, 충분한 발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양자보내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양자보내는 자돈은 보온상자 속에서 모든 자신의 자돈 2두 이상과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넣어두고 냄새를 동화시키도록 하는 편이 좋다. 보온상자에서 내보내진 자돈은 곧바로 모든 자신의 자돈에게 이끌려 유두에 접근, 포유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후 모든 자신이 이유해야 할 자돈을 제외시키기까지 약 2시간은 그대로 두는 편이 좋다.

이 과정은 모든 자신에게 새로운 자돈을 익히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다. 그러나 양자보내기의 성공은 이를 실행하는 관리자의 의식과도 관계가 있다. 1994년의 한 관리자에 의한 실패한 예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관리자는 기본적인 원칙 중 몇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관리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